1/9/22

“멜기세덱의 축복” (창세기 14:17-20)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온 교우님과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2번째 주일 인데, 교회 달력에 의하면, 주현절로 지키는 주일 입니다. 주현절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절기 입니다. 영어로는 Epiphany라고 하지요. 이 Epiphany는 성탄절 후 13일째 되는 날 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월 6일이 주현절이 됩니다. 그리고, 주현절 주일은, 주현절이 있는 주간에, 주현절에 가까운 주일을, 주현절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현절 주일은, 1월 첫번째 주일이 되기도 하고, 2번째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주현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번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아는 것과 같이, 주현절도, 성탄절 못지 않게 크게 지켜지고 있는 축제의 절기 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주현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오래 지켜진 명절 입니다. 남미 교회라던지 또는 동방 교회 – Orthodox 교회들은, 주현절을 아직도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현절의 Epiphany는 그리스어의 Epiphania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Revelation – Manifestation, -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주현절의 의미를 찾아 보았더니,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축하하는 날”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공식적으로 선포 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따라 그들의 여정을 시작을 하지요.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방박사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동방의 어디에서 왔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였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예수께 나와 경배를 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 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현절 절기 –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절기에, 우리들이 그 빛을 비출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14장의 말씀 입니다. 새해 두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첫번째 전쟁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전쟁을 치루게 되지요. 구약의 기록들 중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전쟁의 첫번째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그 주위에는 여러개의 부족들과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시작 되었는데, 불행이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주위의 부족들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없었고, 집에서 양을 치던 318명의 젊은이들 밖에는 싸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318명의 목동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결과는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조카 롯도 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화 함께 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 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승리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촉복임을 깨닳을수 있었습니다. 멜시세덱이 이야기 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 어떻한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은, 바로 알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것 같아요.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군대도 없이 겨우 목동 318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었는데, 승리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였을 것 입니다. 그 때는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 임을 알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경험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할때가 있지요. 내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대로 풀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같은 경험을 우리들은, 정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내 자신을 고백 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나 인지를, 한번 돌아 볼수 있어야 되는 것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들 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생각나게 하지요. 사실,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곳이 전부 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성서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신비의 인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들 이지요. 그럼으로, 멜기세덱은, 장차오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들도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드릴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천지의 주재 –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 하고 있는데 – 그러한 하나님이 금년 한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받아 드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의 인생은 “내 던져진 존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세계 속으로 던져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인간은 언제나 불안해 하고, 번민 할수 밖에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데 “던져져버린 존재” 밖에는 될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키는 일에 동참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불안해 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으로, 나의 삶은 그냥 던져진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천지의 주재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삶은 축복 받은 삶 같지 않고, 나의 삶의 현실은, 광야를 헤메는 그런 삶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Mother Teresa를 기억하고 계시는 교우님들이 계실것 같은데, Mother Teresa는, catholic 교회에서 성자로 모셔진 분 이지요. 인도와 세계 여러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19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서 한 동안 미국 San Diego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Teresa 수녀는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은 33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충분히 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쉬십시요. 오늘은 제가 가서 고통을 받고, 제가 가서 울고 오겠습니다.”

Teresa 수녀의 이런 기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말로 다 할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있는 신앙인의 기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아마 인도의 Calcutta를 여행해 보신 교우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번 Calcutta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Teresa수녀와 그의 동역자들이 사역을 한 빈민굴에 가 본적이 있는데, 그곳의 가난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원하는, 그런 가난 입니다.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Teresa수녀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같이 생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신앙인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그런 빈민굴에서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그런 삶을 제가 보았는데, Teresa수녀에게는 그곳이, 천국이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Teresa 수녀의 삶은,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누가 섰는지는 알수가 없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새장의 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새들을 좋아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새 한 쌍을 선물로 받고 정성스럽게 두마리의 새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을 가면서, 새 장을 아파트 발코니에 놓고 갔는데, 새들이 낮 동안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발코니에 새장을 놓고 일을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들이 자라고, 두 마리의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끼들은 새장속에 만들어 준 둥지에서, 어미새와 함께 자라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부부는 발코니에 놓아둔 새장을, 집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잊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라 새장을 집안으로 들여 왔는데, 벌써 어미새는 둥지를 몸으로 덮은 채로 얼어죽어 있었어요. 부부는, 자기들의 실수로 어미 새가 죽은 것을 보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어미새를 들었습니다. 그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 했는데, 그 어미새의 날개 밑에 두 마리의 새끼와 다른 새가 살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어미 새는, 자신의 육체로 둥지를 덮어 죽으면서 까지, 새끼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죄악으로 덮혀 있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찾아 오시고, 더욱이 나의 삶까지도 찾아 오셔서, 삶과 존재의 의미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며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 입니다. 저희 집 현관 문 앞에는 양쪽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2개의 큰 Flower Pot – 꽃을 담는 화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는 봄에 Costco에 가서 꽃들을 가져다 화분에 심습니다. 그런데, 왼쪽 side는 항상 햇빛이 잘 듭니다. 오른쪽은 지붕에 가려져서 그늘이 지는데, 항상 그늘에 가려진 화분의 꽃들은 왼쪽에 있는 꽃들보다, 꽃들이 많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화분들의 위치를 바꾸어 줍니다. 다 똑같이 물을 주고 돌보아 주는데, 항상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있는 꽃들은, 꽃수도 많고, 크고, 잘 자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햇빛 같은 존재 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할때, 그 사랑은 나를 더 활짝 꽃피우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왔던 축복의 말씀은, 이 시간, 금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입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해가 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은, 마음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축복을 받을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절제있는 생활, 선한 생활, 다 필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믿음”이 있어여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드린 아브라함같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 합니다. 나의 삶에, 지금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 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는 -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입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재 정비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도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축복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 할찌라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 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 드립니다. 새해를 주셨는데, 금년 한해도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주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